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 위해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단체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3월 16일(월) 오후 3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3만여 명의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입된 단체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 노력,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정책 개선 사항 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이번 간담회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26.2.27)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르신,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복지부-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미라	044-202-3132



□ **일시** : 2026. 3. 16.(월) 15:00 ~

□ **장소**

- 보건복지부 회의실

□ **내용**

- 복지정책 관련 협조 요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논의

□ **참석자**

- (복지부) 제1차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장,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복지정보운영과장
- (한사연) 이용규 회장, 이성수 수석 부회장, 정종필 정책국장, 이호원 회원소통부장, 오영은 세종시 회장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5:00~15:05	(05)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15:05~15:35	(30)	◦ 협조 요청 사항(복지부)
15:35~16:25	(50)	◦ 건의 사항 청취 및 논의
16:25~16:30	(05)	◦ 마무리